

칼럼

김운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평창올림픽과 평양올림픽, 평화올림픽

2월 9일부터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북한 선수단 참가와 여자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을 추진하던 중에 북한 동계올림픽 예술단 사진 점검단이 1월 22 일(월) 내려와서 서울과 강릉을 답사하고 다음 날 돌아갔다.

남북 간에 교류 협력이 빈번하고 활발하던 때라면 별 주의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세상은 타이밍, 때(時)가 중요한 법이다. 똑같은 말이나 행동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전지 차이가 난다. 북한 핵·미사일 시험 발사와 미국의 사드 배치·제재 압박, 한미 연합훈련,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간의 말 폭탄 등으로 한반도는 긴장과 대결의 화약고로 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전쟁 불감증에 걸린 것처럼 오히려 평온한데, 미국 하와이와 일본 등에서는 북한 미사일 대포 사이렌이 울리고 시민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하와이와 일본 어느 도시에서는 실제 상황처럼 사이렌이 울려서 시민들이 혼란과 대피를 하다가 이런 작동을 실수로 했다고 발표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평창올림픽을 북한이 참가하고 공동 입장도 단일팀을 구성하여 한반도에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제안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화답해서 급진전되었다. 2016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구두 지시로 폐쇄시킨 이후 2년

가까이 막혔던 경의선 도로를 따라서 내려온 북한 동계올림픽 예술단 사진 점검단은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북한 동계올림픽 예술단 사진 점검단은 단순히 예술단 사진 점검단이 아니다. 대화 채널 하나도 없이 모든 통로와 창구가 막힌 현재의 남북 관계 개선의 선발대이다. 점검단 단장으로 내려온 현송월 산지연관현악단 단장은 냉전과 대결의 남북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시켜서 열어 가는 선봉장이다. 예술과 체육을 넘어서 정치적 함의(含意)와 역사적인 무게가 있는 사건이다.

현송월 단장 일행은 버스를 타고 파주 통일대교를 지나서 서울역까지 와서 케이티엑스(KTX) 열차를 타고 강릉으로 가서 강릉시 내에 있는 명륜고등학교 교내에 있는 황영조기념체육관과 강릉아트센터를 방문했다. 경포대 부근 호텔에서 차고 열차로 서울로 와서 잠실학생체육관과 잠흥체육관, 국립극장을 둘러보았다. 강릉아트센터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북한 예술단이 공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사진 점검단도 스키 합동 연습장소인 마식령 스키장과 동계올림픽 전야제 문화공연 장소인 금강산을 방문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한반도가 들고 남북 공동 입장과 여자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고위급 대표단·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예술단·태권도 시범단·응원단·

기자단 등 600여명의 북한 체육인과 예술인의 방남(訪南)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두고 야당과 일부 보수계급의 극우보수 단체는 20년 고생해서 따온 동계올림픽을 북한에 갖다 바쳤다. 입장식 때 한 반도기 사용은 안된다. 인공기 사용도 안된다. 평창올림픽이 아니고 평양올림픽이 되었다. 제재 압박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평창에 오는 것이다. 북한 전략 전술에 빠져서 끌려 다닌다. 여자하키 단일팀 구성으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피해를 본다. 경기마다 북한 선수 3명씩 출전하도록 했는데, 경기에는 팀웍이 중요하다.

특히 현송월 사진 점검단 단장을 출발시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경찰력을 동원한 것을 두고 한 명의 북한군 대좌(현송월 계급)를 국빈급으로 대접하고 있다. 올림픽이 북한 체제의 선전 선동장이 되었다. 올림픽은 어디로 가고 북한 예술단만 보인다. 현송월이 일방적으로 방남을 하루 늦추고 기자들에게 말 한 마디 않고 다니는 것은 남한 길들이기이고 계획된 것이 아니라, 식사나 호텔도 너무 비싼 것으로 과잉 대접한 것이 아니냐는 등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이 떠들었다.

나는 평창동계올림픽은 너무나 애달픈 우리 분단민족에게 하늘이 준 축복이요, 너무도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쓴 적이 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는 우리

의 손실이 하나라면 이득은 열이다.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크고 많다. 북한의 참가로 평창올림픽은 대결과 냉전의 분단 민족의 '평화올림픽'으로 국민과 북한, 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된다. 외신 기자들도 현송월 일행의 동선을 자세히 보도했듯이, 평창동계올림픽은 흥행도 대박이 될 것이다.

북한의 참가로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고 대박을 가져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끊어졌던 남북 대화가 다시 시작되고, 체육인과 예술인 등이 서로 방문하여 교류 협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 다시 '평창' 이전의 단결과 대결의 냉전 상태로 되돌아간다면, 어느 세월에 다시 대화가 시작될는지, 긴장 상태 속에서 무슨 불행한 돌발사태가 날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게 된다.

지난 1월 9일, 관문점 평화외지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공동 발표문을 상기한다. 쌍방은 첫째,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둘째, 군사적 긴장 완화,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 마련 및 민족적 화해와 단합 도모를 위한 공동 노력한다. 셋째, 기존의 남북신인 존중,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쌍방은 서로 자극해서는 안된다. 제재와 압박, 훈련과 비핵(非核), 핵과 미사일 같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서로 삼가야 한다. 나는 할테니, 너는 이해하고 하지 말라고 한다면 안된다. 남과 북이 서로 잘한다고 싸우면 누가 손해이고 누가 좋아할 것인가. 다시 틀어지면 어느 세월에 다시 만나서 대화하고 교류 협력할 수 있겠는가.

社說

실감 안나는 일자리 창출

지난해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해 취업을 포기한 '실망실업자'(구직단념자)가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청년층이 가장 크게 늘었다.

실망실업자가 2년 연속 100만명을 넘어서는 상황에 청년실업률마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취직 대신 취업준비를 선택하는 청년 구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실망실업자는 4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600명(8.0%) 증가했다.

실망실업자가 이토록 늘어난 것은 연간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뒤 실망실업자가 크게 늘었던 지난 2000년(16만5000명)과 2010년(22만명)을 뛰어넘는 규모다.

통계상 취업희망과 취업가능성

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2014년부터 실망실업자 규모가 30만명대로 크게 늘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역대 최대 규모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28만7300명으로 여자 19만1500명보다 9만1400명 더 많았으며, 남자의 경우에 청년실업률마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취직 대신 취업준비를 선택하는 청년 구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실망실업자는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해 구직포기상태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고용지표에서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며, 주로 경기와 화나 고용시장 위축 시기에 늘어나는 특징을 보인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않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피부에 와닿는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徘徊瞻眺

어정거릴 배
머뭇거릴 회
볼 점
바라볼 조

徘徊瞻眺

▷ 뜻: 같은 장소를 배회하며 선후를 보는 모양임.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얼어붙은 도로, 빙판길 사고를 주의 합시다

최근 전남 지역은 폭설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곳곳에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 생기면서, 부쩍 빙판길 사고가 많아졌고 빙판길에서는 차량의 움직임을 예상하기가 힘들어서 각종 추돌사고들이 많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추돌사고가 날 때

다 몇 배는 더 위험한 상황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차량의 속도가 감속되는 정도가 거의 없거나 피 하기 때문에 달리던 속도 그대로 추돌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차량 부품 등이 발전됨에 따라

ABS기능이 생기면서부터는 차량이 빙글빙글 도는 현상은 거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속도 자체가 제대로 감속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빙판길 사고는 위험합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빙판길이 생기게 된다면, 그 빙판길에서 우리

들이 가고있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천천히 주의하며 다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점 숙지하고 서로를 위해 조금씩 배려해 나가면서 본인의 안전 및 타인의 안전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또한 하나의 아름다운 문화로 자리매김 하였으면 합니다.

국영표 / 국영119안전센터 소방위

湖南新聞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Korea's Happiness' featuring a woman and a man, with text about mutual respect and happiness.